

“의료진·도민에 희망을” 경북도, 손글씨 캠페인

편지 시작으로 SNS 통해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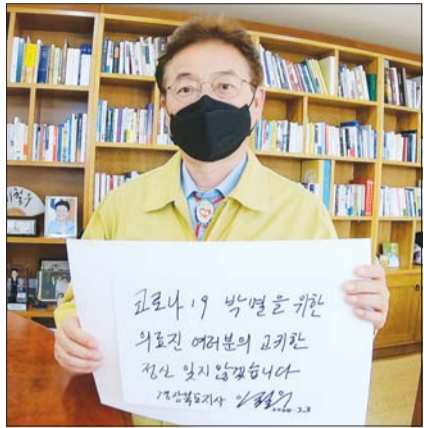
경북도가 의료진에게 전하는 SNS 손글씨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방역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응원하고,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3일 시작된 캠페인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의료진에게 전하는 손글씨 편지를 시작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참여 방법은 의료진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를 손글씨로 쓴 후 사진 또는 영상을 찍어 해시태그와 함께 도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거나, 개인 SNS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공식 유튜브 보이소TV와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SNS 손글씨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 만큼 많은 분들이 동참해 희망을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동네방네

안동시, 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 돌입

감시초소·무인카메라 등 감시망 가동

안동시는 봄철 산불피해 방지를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하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63명, 산불감시원 167명을 시 전역에 집중 배치하고, 감시초소 28개소, 무인감시카메라 22대 등으로 입체적인 감시망을 가동 중이다.

지역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8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주된 원인은 인위적인 요인인 각종 소각(쓰레기·농산 폐기물 등)과 실화로 60% 이상을 차지하며, 본격적인 영농활동을 시작하는 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불 가해자는 입건처리를 하고, 산림과 연결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울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광양시,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속 추진

농가 소득감소분·생산비 차이 보전

광양시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ha당 논·밭의 경우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밭의 경우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채소 등 기타 작물 유기농은 130

만 원, 무농약은 110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0.1~5.0ha이고, 지급 기간은 유기농산물은 계속 지급하고 무농약 농산물은 3년이다.

3년을 초과한 무농약 재배 농가는 논·밭의 경우 ha당 25만 원, 밭의 경우 과수는 60만 원, 채소 등 기타 작물은 55만 원을 지방비(도·시비)로 지급한다.

단, 올 연말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된다.

/전남=김용환 기자 jiacocom@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1 | 해질 / 18:28

3월 6일 (금)
음력 : 2월 12일

수도권 날씨
-2 ~ 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6/9
동두천 -5/9
가평 -5/10
파주 -6/9
서울 -2/8
양평 -4/10
인천 -1/7
수원 -1/8
용인 -1/8
평택 -4/9

백령도 2/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남 주요 봄축제·행사 줄이어 취소·연기 “지역주민에도 ‘슈퍼 추경’ 필요”

대부분 시군 축제 취소·연기 검토
지역 주민·관광산업 타격 불가피
“취소는 타당하나 생존대책 있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남 주요 봄축제와 행사 등이 속속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모임과 외출을 삼갈 것을 권고하는 마당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축제와 행사 취소 등이 타당하지만, 축제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여론이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보성군은 5월 열릴 예정인 보성벚꽃축제를 비롯해 득량보리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보성세계차박람회, 울포해변 활어잡기 페스티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등 6개 축제를 모두 취소했다.

구례군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 관광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1회 구례산수유꽃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함평군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열 예정이었던 ‘2020 대한민국 난명품대제전’을 오는 11월로 연기했다.

전남도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영광군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59회 전남도체육대회를 잠정 연기했다.

담양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이달 중 하순까지 진정되지 않으면 5월 초 개최 예정인 대나무 축제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함평군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5월 열리는 나비대축제 취소 여부는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전남 대부분 시군도 이달 중하순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4~5월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전남에는 5월 초·중순에 크고 작은 축제 수십 개가 집중된 만큼 취소 여파는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축제와 행사를 준비하는 민간업체와 축제장 주변 소상공인과 자영업 피해 등은 불을 보듯 자명한 상황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5일 “대도시와 달리 지방 소규모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축제 취소와 연기 결정을 한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주요 축제와 행사를 무더기로 취소할 수밖에 없어 문화, 예술, 공연 분야 등 사회 다방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주변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 중 하나가 관광산업이다”며 “정부가 11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지역 축제와 관광산업 타격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도 쓰일 수 있도록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김태수 기자·양수영 기자 ts7080@metroseoul.co.kr

“힘든 시기 함께”... 학생·기업 등 온정의 손길

상주시 저소득층·어르신 등 어려움 커
성금·물품 독거노인·격리자 등 전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크다. 그러나 이들을 위해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는 응원의 손길이 이어져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농업회사법인 (주)더 상주가 3000만원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이상배(썬나 대표)가 5000만원, 상주시



학생들이 직접 쓰고 포장한 사탕 꾸러미

의회 안경숙 시의원 100만원, 상주시인터넷기자협회가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와 함께 상주해정농기계는 총전식소독분무기 25대를, 한솔생명과학(주)는 손 소독제 10,000개를, (주)매지션은

마스크 30,000매를 기탁하는 등 총 26건,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왔다.

성금과 물품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독거노인,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등에게 전달되고 있다.

학생들의 응원도 눈길을 끌었다. 삼지윤(우석여고 2학년), 심서현(성신여중 3학년) 자매는 직접 쓰고 포장한 손편지와 사탕 꾸러미 200여 개를 ‘상주시 코로나19 종합대책 T/F팀’에 전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주시지부는 위기 극복을 바라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어 시민들을 응원했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j2136@

문경시, 농촌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신규 사업비 40억 확보

문경시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20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 신규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산북

면 전두리(20억원, 2020~2022) ▲가은읍 성유리(20억원, 2020~2022) 등 2개소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약지역을 선정해 3년간 사업을 추진한다. /장성우 기자 krhon@

경북도농업기술원 농약 안전사용서 배포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 경북지역 주요 특화작물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이번 책자는 감, 고추, 마늘, 복숭아, 오미자, 자두, 포도 7종의 주요 작물의 병해충에 대한 내용과 함께 등록된 약제들을 농약 작용 기작별로 정리해 수록했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 등에 배포해 재배농가 홍보와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문봉현 기자

여수시 “저신용 소상공인 보증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특별보증 협약

여수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5일 전남신용보증재단과 ‘2020 여수사

랑 특별 보증’ 업무협약을 가졌다.

여수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해 저신용 소상공인 등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18억 원 규모로 대출금 100% 전액보증을 실시한다. /전남=김용환 기자



경북도농업기술원은 특화작물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서를 발간·배포했다.